

예산확보에 총력전... 현대차·노조 만나 '마지막 협상'

'광주형 일자리' 15일 데드라인

이용섭 시장 본사에서 사장과 면담 부시장, 노조와 투자협약서 논의 예산 미확보 땀 협상 동력 약화

광주시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5일까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노동계를 다시 만나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역 노동계와 마련한 투자협약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대차와의 협상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해왔으며, 이 시장이 직접 나서지는 것은 처음이다.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용섭(가운데)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진행된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장은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정지권 협조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15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만큼 그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시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전날에는 지역 노동계를 잇달아 만나 사업 참여를 호소했다.

9일 오전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예정 없이 만나러 갔고, 오후에는 협상 파트너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과 만나 평균초임 등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비춰 현실성이 없다며 사업 중단을 요

구하고 있다.

시와 노동계의 협상 테이블인 투자유치추진단 회의도 이 시장의 방문에 이어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이병훈 부시장은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밝히고 투자협약서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역 노동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지난 8일 서울 현대차 본사를 찾아 노동계와 논의된 협약서를 토대로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 수준, 공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 2~3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이견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을 노동계에 설명하고 동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노동계와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현대차를 찾아 재협상에 나선다.

국회 예산 심의가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려면 이날까지는 현대차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시는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을 끌어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사업 추

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국회 예산 심의까지 협상을 끝내달라고 못을 박은 만큼 이번 재협상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사업에 반대하면서 현대차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데다, 노동계도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이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현대차와 노동계, 노동계 내부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재협상도 실패하게 된다면 사업 추진의 동력도 급격하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확보'라는 명분이 사라지면 시가 당정을 비롯해 현대차와 노동계를 사업에 끌어들이 명분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와 노동계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아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15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마지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함평군 월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배우고 있는 모습. /함평군

함평군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 성료

전남 함평군 월야초등학교(교장 문광호)가 지역 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진행됐던 이번 생존수영 교실에는 지역 초등학교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기본수영법, 구조되기까지 장시간 떠있을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영법을 배웠다.

지난 9월 1일,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함평군 거점학교로 지정된 월야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 일부분을 활용해 어

름 형태의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고 온수 및 온풍기를 가동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에 최대한 신경 썼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생존수영 전문 강사 2인, 안전요원 2인, 총괄 관리인 1명 등 총 5명의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며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월야초등학교 문광호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을 잘 습득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70억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 20곳 추가 지정 지역공공구매 우선 구매 혜택 제공 자생력 확보... 일자리 확대 기대

전남도는 예비사회적기업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사회적기업에는 70억원을 지원해 이들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전통놀이 교육·놀이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하는 우리노리협동조합, 전통무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치리움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농수산물 가공·유통하는 ㈜뽕돌바다사람들, 농업

회사법인 ㈜나주시골농장 등도 새로 뽑혔다.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시설 장비 등의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공공구매 우선 구매 혜택도 주어진다.

전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도내 145개 사회적기업에 모두 70억원을 지원한다.

엘로우지브라 등 51개 기업에 368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비 53억 원을, ㈜미루나무 등 30개 기업에는 7억원의 사업 개발비를 제공한다.

사단법인 건강나눔 등 48개 기업에는 6

억원의 시설 장비구매비를, 유비एको 등 16개 기업에는 4억 원의 고도화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우수기업임에도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에는 이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사회적기업은 155곳으로 연 매출 1천354억원에 고용 인원 1천254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 고용률이 75%나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선 7기 4년 동안 사회적기업 2천 개를 육성해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공동체의 토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 '싱크홀 주의보'... 증가율 전국 6배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싱크홀(지반 침하로 인한 동공)'이 전국 평균 증가 폭의 6배 이상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 시민안전실이 장재성(더불어민주당, 서구1) 광주시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41건으로 지난해 전체 21건보다 95% 증가

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14%보다 6.7배에 달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은 모두 1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역별로 광산구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20건, 북구 14건, 남구 13건, 서구 9건 등이다.

올해 발생 원인별로는 하수관 문제로

파악된 건수가 36건(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5건 중 80건(76%)이 하수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345km에 달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천251km에 이른다.

장 의원은 "하수관이 원인으로 지목된 싱크홀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광주시 노후하수관로 교체 시급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도청 조자옥 주무관 쌀생산조정제 대통령 표창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쌀생산조정제 사업의 목표 달성에 노력한 전남도청 조자옥(47)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조 주무관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쌀생산조정제 사업에 온 힘을 쏟아 전남도가 도내 목표면적(1만698ha)의 94%를 달성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전남도, 지방분권 대응 토론회 진행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남도 차원의 균형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지방분권 토론회가 지난 9일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정부의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분권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의미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배정아 전남대 교수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 분야 대응 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이어 문행주 전남도의원, 박영주 동신대 교수,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였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8 | 해질 / 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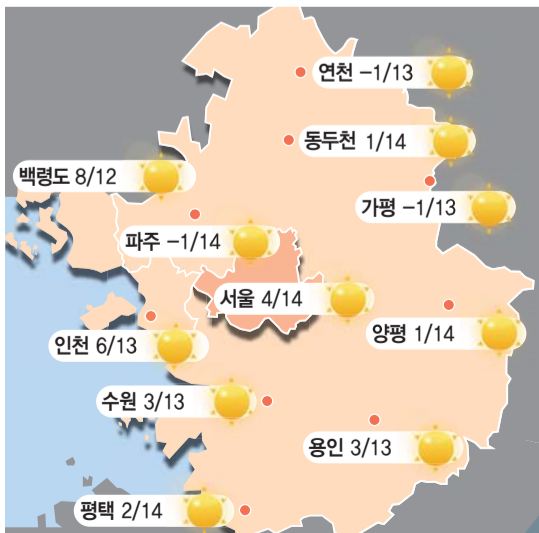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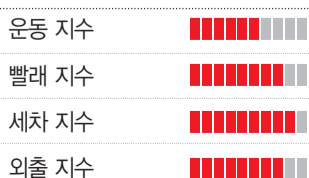
11월

12월 (월)

음력 : 10월 5일

수도권 날씨

4 ~ 14°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